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11차 세션, 신약 성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요한 서론

© 2024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1,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요한 서론입니다.

계시록 교리와 특히 성경에 대한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이 일반 계시로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탐구할 때, 특히 오늘 아침, 당신의 아들의 육신 안에서 당신의 계시를 탐구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생들은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형태의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단, 대제사장의 직분과 인격과 복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 즉 우림과 둠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고, 그럼에도 두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성육신으로서의 특별 계시와 성경에서의 특별 계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우리 과정의 정점이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에 할애할 것이지만, 성육신으로서의 계시는 소홀히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복음서를 읽고, 그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약이 예수를 제시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봅니다. 그는 자신을 제시하고 사도들도 우리의 모범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인격, 말씀, 행위, 사역의 소홀히 여겨지는 측면은 그가 신을 계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이자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그는 모범이시며,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계시이며, 히브리서 1:1과 2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별개로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자신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 독생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8, Christian Standard Bible.

신인은 계시자와 계시자 둘 다 될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릭슨의 통찰력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밀라드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표현에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우리가 관찰한 것, 우리 손으로 만진 것,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품, 말씀,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그의 성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성육신하신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골로새서 1:15). 인용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의 본성의 정확한 표현. 닫기 인용문,

히브리서 1:3.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를 본다고 증거합니다(요한복음 1:14).

예수께서는 제자 중 한 명이 신현을 요청하자 격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를 보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자비롭고, 충실하고, 진실하고,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성격은 신을 드러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는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신을 거룩하고, 정의롭고, 관대하고, 자비롭고, 자비롭고, 충실하고, 진실하고, 강력하고, 주권적이며, 지혜로운 자로 드러냅니다.

예수의 말씀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신을 드러냅니다. 신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최고로, 인용하자면,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 1:1, 2).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성전 경찰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요한복음 7:46).

예수님 자신이 선언하셨습니다. 인용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63. 그의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나 강력하게 계시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 계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38-47.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를 위해 죽을 의향이 있지만 모세의 글이 가리키는 분, 곧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은 얼마나

충격적인가. 예수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증거한다, 마태복음 12:28.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누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한다, 마태복음 8:23-27, 하나님 의 정의, 마태복음 11 :20-24, 그리고 그의 자비, 마태복음 9:18-25, 14:14가 생각한다. 게다가, 그의 치유, 엑소시즘, 그리고 자연적 기적은 죽은 자의 부활과 새 땅을 예견한다.

바빈크가 주장하듯이, 허먼 바빈크는 교의학을 개혁했고, 원래의 세 권이 마침내 영어로 번역되었고, 심지어 한 권으로 축약되기도 했습니다. 바빈크를 인용하자면, 최후의 영광에 대한 기대는 특히 예수의 강력한 치유와 창조물 회복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용문 닫기. 예수의 가장 위대한 계시적 행위는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에베소서 1:7, 8, 사랑, 로마서 5:6-8, 의로움, 로마서 3, 25, 26, 권능, 히브리서 2:14, 15 등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방금 살펴본 모든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특별 계시, 성육신. 서론을 계속하면, 요한일서 1:1. 복음서의 저자는 이 세 서신의 저자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요한일서 1:1,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생명이 나타났느니라, 2절. 우리가 보고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 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요한복음은 창세기 1:1에서 인용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같은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조금 후에 그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말하고, 나중에 그는 그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자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육신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백성에게, 심지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와 다른 사도들이 이 영원한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또는 육신을 입은 생명의 말씀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방식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예수를 신인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산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요약된 위대한 종말론적 담론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눈먼 사람과 귀머거리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군중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바라보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 손으로 만져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인은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신성한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을 보고, 듣고, 만졌나요? 터무니없어요. 신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이것이 교부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특이한 진술들 중 일부에서, 속성의 전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신성한 본성에 관한

칭호로 명명되고, 그에 대해 동사가 사용되는 동일한 문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명명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동일한 문장에서 동사는 그의 인간성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의 주님은 신성한 칭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들이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당신은 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신은 영이야. 당신은 하늘에서 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실제로 신이었어.

그리고 물론 그를 보고, 듣고, 만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의 육체적, 그의 몸, 그의 인격적 육신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성의 교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사람이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의 전달 사례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서의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인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인격의 자리, 연속성의 요소는 그의 신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고, 성자, 성육신 이전의 아들은 성육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그의 신성한 인격에 의해 확립됩니다. 그는 사람을 자기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자신에게 가져가며, 인간적 요소의 속성, 인간의 구성, 인간의 몸,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놀랍게 들리더라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즉, 요한은 성육신이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신보다 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보다 인간에게 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아들이 인간이 되었을 때, 그는 완벽한 매개체, 완벽한 대리인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인, 완벽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민족 집단에 맥락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메시지이고, 그는 신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디모데전서 2:5.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들이 영원한 말씀, 살아 계신 말씀을 감각으로 체험했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를 선포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를 대신할 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우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아들의 눈, 귀, 손의 증인이며, 그들은 그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 대문자 L,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교회 지하에서 커피와 도넛을 먹는 것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교제는 하나님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구원에 대해 말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추가된 것이나 부록, 또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의 교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특징적으로 성령을 생략합니다.

체계 신학은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요한은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데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모든 신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육신을 계시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경이로움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멸의 신이 그의 창조물 속으로 들어와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그는 창조자이자 피조물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가 발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참되고 살아 계신 신이시므로, 길은 이미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길을 취하고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중 일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신성한 능력을 유지합니다. 그가 포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아무도 아들의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도, 아들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굴욕을 당한 상태에서 지상에 계셨던 시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들이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신성한 전지성을 행사하고 자신의 재림 시기를 아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들의 영원성,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 둘 다 하나님인 것, 아들이 창조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던 것, 아들과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에서 공명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글쎄요, 요한복음 1장도 성육신에서 특별 계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빛이라고 불리며, 적어도 6, 6절에서 8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와서 그 은유로 성육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4에서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조금 후에 전 문단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오신 빛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에 대해 증거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전에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번역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영원한 말씀이 육신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화를 가르치는 주요 본문입니다. 육신을 입기 전의 영원한 아들이 육신을 입은 아들이 되어,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신인 (God-man) 이 되었고, 성육신은 영구적입니다. 오, 우리는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의 예수와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를 두

상태의 교리에 따라 구별합니다. 굴욕의 상태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매장으로 끝나는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매장하는 것이 얼마나 병들었습니까?

그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굴욕의 상태이며, 비천한 상태이며, 아버지께 복종 하고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승영의 상태는 그의 부활에서 재림까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승영되어야 할 대로 승영되는 상태이며 그에 상응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상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와 승영의 상태를 장식할 때, 그것은 마구간에서의 비천한 탄생이나 십자가에서의 십자가형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죽이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중적 의미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그 예가 있습니다. 거하셨다는 단어는 장막에 거했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살았다는 의미인 거하셨다는 의미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중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다음 단어와 잘 맞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을 가득 채워서 모세나 아론이나 다른 누구도 그 신성한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림과 둠밈을 제외한 여러 형태의 특별 계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형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영광이며, 베드로는 변형의 양에 대해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변형된

분은 예수님이지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세 개의 천막, 세 개의 초막, 세 개의 천막을 짓자.

주님은 쇼와 목욕 석탄을 담고, 하늘에서 온 음성이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예언자, 모든 예언적 계통,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예언하는 출애굽기 18장의 메아리와 함께, 그의 말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독특하게 드러내며,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서서 영광 가운데 오는 인자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맥락 때문에, 그리고 마태 복음에 변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대처럼 보이고, 우리가 실제로 상상할 수 없는 재림의 영광의 작은 조각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들의 계시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구절과 말씀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스터디 바이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에 대한 주석에는 구원은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신약에서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あ. 스코필드는 그 주석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그의 후손 과 제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뜻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는 확실히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빛나간 표식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 은혜와 진리는 시편 117편에 나오는 히브리어 *hesed v'emet* 의 그리스어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위대한 계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곳에서, 그것은 구약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그것들은 구약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난 은혜와 진리와 비교된다. 구약의 은혜와 진리는 거기에서 개념이었다.

그것이 유래한 곳입니다. 비교했을 때 무시할 만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었다고 말한 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을 가리어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영광이 있었다고 말한 후에, 그는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마지막 비교는 그것은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양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마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그 개념이 많은 곳에서 시작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한 그의 진리의 계시에 의해 가려집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며 말했습니다. 요한 복음 전체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인 것은 저에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몇 구절에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동안 말라기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고 선지자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가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예수에 대해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버지는 요한에게 표적을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초기에 요한 세례자 종파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컬트였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했다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지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는 사람이나 짐승,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순서대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표적도 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 되도록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가리키는 증인일 뿐입니다.

나는 감소해야 한다. 그는 증가해야 한다. 존의 잘못이 아니다.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컬트가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도자들이 그를 심문하러 보냈을 때 1장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세상에.

어쨌든, 존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문자 그대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횡설수설처럼 들립니다. ESV는 그것을 잘 번역했습니다.

그는 시간 안에 나보다 뒤에 오실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앞서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나보다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선재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예수가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영원한 아들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또, 17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위대한 구약성서 중재자입니다. 거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는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계시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는 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낸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 서론은 이렇게 끝난다.

아버지 곁에 있는 유일한 신. 그는 그를 알렸고, 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를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보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계시로서의 성육신이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 :8~1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한탄하시면,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환경에서 일해 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면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과 그들이 견뎌야 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매일. 글썄요, 예수님도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요.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습니다 . 14:7.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 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는 그를 보았다.

앗. 필립의 심장에 스위치가 켜진 셈이군요. 필립이 그와 제게 말했습니다 .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신현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진정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당신이 하는 말 중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예수는 다소 지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니,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필립,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위대한 자이다. 나는 육신으로 있는 신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신학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오직 아들만이 성육신했다.

아버지는 1인칭이며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문장과 제 진술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우리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볼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그의 일을 하십니다. 나는 신성한 계시를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으로서 말한다. 나를 믿으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믿으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인내심 있는 구세주인지를 알잡아 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신을 마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들은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마 이미 굶여를 갚았을 테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마음을 날려버렸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부는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가르침인가? 그는 악마에게 명령하고, 그들은 나온다.

오, 와우. 성육신은 위대한 계시입니다. 신의 특별 계시.

왜 특별한가? 예수께서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성육신하여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분과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 사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사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구약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데려가지고 듣고 배우고 믿고 구원받고 성장합니다. 신약의 특별

게시, 요한 복음의 성육신.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감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5, 성육신하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4-18, 그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드러낸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의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는 1장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빛. 오, 그것은 이미 6에서 8까지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결코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에게 머리를 기대었던 사람이지만,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 명칭은 위대한 선구자, 세례자 요한에게만 해당됩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습니다. 의미는 빛, 즉 예수에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은 침례자와 예수를 구별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성향이 침례자 요한 컬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저는 제 주장을 접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8절), 그러나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말했듯이 아들을 아들,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말씀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빛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 두 그림은 모두 성육신한 아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는 성육신한 아들이지만, 그 칭호는 조금 후에 신을 계시하는 자로서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비춥니다.

그것은 이해를 가져다줍니다. 오, 신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를 닫고 취소하는 자에게, 그의 빛은 어둠을 가져다줍니다 .

그것은 심판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다음 강의의 9장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구절은 선한 사람들, 철학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해되어 일종의 철학적 진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적 역사적 진술입니다. 문맥 속에서 단어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왔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서 그의 제자 중 일부가 와서 요한에게서 떠나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의 요점입니다.

존은 자신이 신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없애줍니다. 그는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는 말한다, 가라. 내 사역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를 때 완성된다. 나는 증인이다.

그는 빛입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지만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참 빛, 9절, 세상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한정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참된 빛을 말합니다.

영원한 로고스로서 그는 모든 인간에게 인식을 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장, 4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육신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인간에게 비추고,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지상 사역에서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은 그가 세상에 온 의미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으로 인해, 10절, 그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3절로 돌아가 보세요. 창조주는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절을 이해하는 하늘에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는 목사와 크리스천 친구는 배척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척당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부모에게 배척당한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신의 길을 따라 신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글쎄요,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제사장이 있고, 거부를 이해하는 우리도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피조물에게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거부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자기

소유로 왔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소유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왔다.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대해 요한아, 네 어머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여, 여자여, 그건 2장에서 그가 그녀를 바로잡을 때, 그리고 부드럽게 바로잡을 때 나타납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여인이여,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를 꾸짖지 않습니다, 피트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요한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그리고 그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 시간부터 제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그가 자기 집으로 왔다고 번역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창조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오, 세상에. 그는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다.

어떤 사람들은 목수로서의 그의 직업, 인간으로서의 그의 직업에 어떤 놀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물로 왔고,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요한 복음은 현실적입니다. 빛의 관점에서 성육신에 대해 말한 후, 우리는 9, 10, 11절을 읽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12와 13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거야. 그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특별 계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위대한 장, 9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1, 신약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육신, 요한 서론.